

전북대 과동규 석사과정생, 도레이 산학장학생 선발

전북대학교 과동규 석사과정생(바이 오나오윤합공학과, 지도교수 이재우)이 도레이 첨단소재 R&D 산학장학생에 선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전북대에 따르면 도레이 첨단소재 R&D 산학장학생은 국내 대표 소재 분야 기업이나 일본 도레이 그룹의 자회사인 도레이 첨단소재가 학생의 석사학위 과정 동안 학비 전액과 생활비 등을 지원해 졸업 후 기업에 채용하는 제도다.



특히 도레이 첨단소재 산학장학생은 전국에서 2명만을 선발했기 때문에 이번 선정의 의미가 남다르다.

과학기술통신부의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용 바이폴리미크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과동규 석사과정생은 이번 선정으로 남은 석사과정 동안 도레이 첨단소재로부터 학비 전액, 생활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은 뒤 졸업 후 도레이 첨단소재에 입사할 예정이다.

과동규 석사과정생은 “연구에 집중하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주고 지도해 준 교수님과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준 연구실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



학생해양수련원, 지역주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원장 박영석)은 학생들의 비수련기간인 동절기를 활용해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관리자,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해양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학생해양수련원 홍보를 위해 해양인체험 프로그램 체험과 시설 견학으로 진행됐다.

특히 해양인체험관은 2023년 박영석 원장이 5억여 원의 추경예산을 수립, 학생들의 진로체험 일환으로 조타실 등 교육장을 리모델링해 해양인체험의 장을 확대했다. 이에 체험 대상자들은 해양선박탈출, 객실화재, 객실대피, 버스 추락탈출 등 다양한 해양인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박영석 원장은 “학생해양수련원은 단순히 학생들의 체력 발달을 위한 수련기관이 아닌 인성교육의 중심이 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지법 남원지원 조정위원회, 장학금 기탁

남원 충향장학재단은 20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조정위원회(회장 김동범)서 장학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고 전했다.

남원지원 조정위원회 회원들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올해는 후배들이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공부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

김동범 회장은 “남원의 미래 꿈나무인 학생들을 위한 뜻 깊은 일을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코텍, 김제시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김제시는 (주)이코텍(대표 최병대)이 20일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해 달리며 2백만원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이코텍은 지난 2002년 12월 설립해 자동차 부품 도장과 페인트사업을 주요 업종으로 2014년 김제시와 여성친화일촌기업 협약, 김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주최 취업박람회에 참여한 기업이다.

최병대 대표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에 저소득 가정과 시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김제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여러분의 첫 출발 홍겁게 응원합니다”

국립군산대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국립군산대학교가 20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졸업생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했다.

학위수여식에는 강태성 총동문회장, 김의겸 국회의원, 박정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부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원, 군산시의회 의장 김영일 의원,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세자 의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신애 의원, 박종래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장 및 국립군산대학교 주요 보직자, 학부모, 졸업생 등 1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올해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1,229명, 석사 88명, 박사 55명 등 총 1,372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또한 명예학사학위, 자랑스런 활동인상 및 명예동문패 시상, 졸업생 연주 및 어머니 소감발표, 선배졸업생 축사를 다양화하였다.

먼저 2022 대한민국인상상'과 전리복도 자랑스런 청소년상'을 수상한 음악과 소정훈 졸업생의 피아노 연주가 있었다. 이날 소정훈 학생 연주와 함께 어머니 소감 발표도 진행돼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다. 소정훈 학생은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학업에 임하며 많은 청년들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

이어 양정무 전북지역협의회장에 대한 명예학사학위 수여가 있었고 서천군 김기용 군수, 전북은행 김선희 부행장에 대한 자랑스런 활동인상 및 자랑스런 동문인상 수여가 진행되었다.

양정무 전북지역협의회장은 1980년 군산시의 전신인 군산수산전문대학에 입학해 전북지역학생대표단으로 학원기율회를 위해 활동을 하였다. 1980년도 민주화(서울의 봄) 운동에 대한 내외 압박으로, 1980년 9월 퇴학



처리되었고, 이후 사회에 진출하여 전북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였다.

김기용 군수는 주민주도형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공동서비스를 개선하고, 귀농귀촌 청년입주민을 위한 공동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였다. 김선희 부행장은 유리천장을 짧고 전북은행 첫 여성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JB금융그룹 내 60여 명 임원 중 유일한 여성임원으로서 지역과 모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의 선배 졸업생 대표로 이한선 변호사(법학과 12학번)가 졸사자를 통해 사회 첫출발을 하는 후배들을 격려하였고 소프트웨어학부 이경 학생이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하였다.

한편 이장호 총장은 식사를 통해 “이제 국립군산대학교가 전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오는 전국구대학으로 성장했다. 선배들이 전국 각지에서 별처럼 빛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졸업생들도 사회에 나가 선배들처럼 사회의 동량이 되어 모교를 빛내주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남원 도통동, 중앙일렉파워와 전등 리모컨 설치 협약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전등 무선리모컨 설치 사업을 계획, (주)중앙일렉파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 회사 신창섭 대표로부터 전등 무선리모컨 설치에 관련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본 사업은 가정 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앉은 자리에서 전등을 켜고 끌 수 있도록 무선리모컨을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이는 어두운 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올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신창섭 대표는 “재능기부를 통해 이웃을 도울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하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소선자 동장은 (주)중앙일렉파워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관련된 유익한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 농협-고창군 농·축협, 고향사랑 4000만원 상호 기부

정읍시 관내 지역농협과 고창군 농·축협 조합장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간 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 19일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하는 기탁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에는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경경), 고창 지역 6개 농·축협 조합장과 NH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이재연), 정읍 지역 7개 농협 조합장이 함께 했으며, 정읍시지부와 고창군지부 관내 농·축협 임직원 400여명이 각각 기부에 동참해 정읍시와 고창군에 4,000만원을 기부했다.

고창군 조합운영협의회 유덕근 조합장은 “상호기부를 통해 고창군과 정읍시의 상생협력과 교류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기탁행사가 시행 2년차를 맞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미중들이 되어 올해에도 더욱더 활성화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사랑과



지속적인 관심으로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상호 기탁해 주신 정읍시와 고창군 조합장님들과 농협 임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기전대 축구부, 춘계연맹전 16강 진출

전주기전대학 축구부가 경남 통영 신양스포츠파크 5구장에서 열린 제60회 춘계대학축구연맹전(이하 춘계연맹전)에서 한일장전대 축구부를 꺾고 16강에 진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기전대는 한일장전대를 상대로 전반에 두 점을 선취하고 후반에 페널티킥으로 한 점을 내줬다. 이어 수비 진영에서의 어려움에 한 점을 다시 넣어 2:2로 승패 없이 승부차기에서 풀입 5:3으로 꺾고 16강에 올랐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전주기전대학 만이 16강에 올랐다. 고학년 대회에서도 불구하고 예산 및 본선전에서 뛴 주전 선수 대부분이 신입생으로 구성돼 전주기전대학의 전략과 패기다.

한편 오는 21일 고려대학교 축구부와 16강 경기를 치른다.

이종민 교수(운동지활과)는 “이번 대회에서 끈질긴 정신력으로 단합을 보여준 학생 선수들이 다음 경기에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주대학



최강이 아닌 전국 대학의 최강이 될 때까지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김제시 약사협회, 환경미화원 초청 정성 담은 식사 제공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약사협회(회장 박현철, 방현신)가 20일 깨끗한 환경을 위해 주운 날씨에도 뮤비기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는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청소지원과 전 직원 120명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박현철 회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일 새벽에 구슬땀을 흘리는 환경미화원에게 회원분들과 함께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식사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따뜻한 화합의 자리를 마련해주어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제시 약사협회는 지역 내 청소년, 취약 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성금 150만원 기탁

장수군 행복장수 실현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 기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장수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조질성, 이하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군을 찾아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성금 150만원을 기탁했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2012년 5월 설립된 이후 현재 86개 동호회에 1,342명이 가입돼, 동호회 간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의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이어오고 있다.

조질성 이사장은 “작년도 동호회(86개) 운영비를 절약하여 남은 회비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한 것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나눔 사람을 실천해 주신 장수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게 감사드린다”며, “장수군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탁한 성금은 전라북도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